

본당 소식

2025년 3월 교황님 기도지향 : 위기상황에 놓인 가정들

화목하지 못한 가정들이 용서를 통하여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다름 안에서
서도 각자의 은사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미사 및 친교 나눔 이후 뒷정리를 철저히 합니다.

♣ 부활 판공성사 안내

- 판공성사 기간: 4월 13일(주일)까지.
- 주일 미사 시작 15분 전에 고해소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 구역별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일정 안내

- 십자가의 길: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오라토리오
- 3월 28일(사순3주간): 3구역
- 4월 4일(사순4주간): 청년구역
- 4월 11일(사순5주간): 암브로시오회

♣ 미사 전 성가연습 안내

- 미사곡 변경으로 인한 전 신자 미사곡 연습
- 3월 23일, 30일 (주일) 10:30 , 오라토리오

♣ 모임/회의

- 성모회의: 금일(23일) 미사 후, 오라토리오
- 구역모임: 3월 26일 (수) 21:30, 로베디네 클럽하우스

♣ 봉사자

- 계단, 화장실: 정상현 안토니오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335.95€ • 교무금 100.00€

전례 성가

- 입당 : 117 (지극한 근심에)
- 봉헌 : 511 (미약하온 우리제물)
- 성체 : 174 (사랑의 신비)
165 (주의 잔치)
- 파견 : 123 (십자가 지고 가시는)

전례 봉사

이번 주일(3월 23일)	다음 주일(3월 30일)
1독서: 정상현 안토니오	1독서: 임근영 사무엘
2독서: 우윤정 마리아	2독서: 김윤경 모니카
복 사: 정이한 다윗, 안태오 마태오	복 사: 강윤이 스텔라, 문수빈 미카엘라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 사목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부회장: 김재의 미카엘 ·총무: 박건욱 레오
- 전례위원장: 이민찬 비오 ·성모회장: 김효경 릿타 ·외교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청년구역장: 진하림 글라라
- 1구역장: 유정연 릿타 ·2구역장: 허희숙 마리아 ·3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2025년 3월 23일 (자) 사순 제3주일

미사 전례

본기도

하느님, 온갖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단식과 기도와 자선으로 죄를 씻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뉘우치는 저희를 굽어보시고
죄에 짓눌려 있는 저희를 언제나 자비로이 일으켜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 주님은 정의를 펼치시고, 억눌린 이 모두에게 공정을 베푸시네. 당신의 길을 모세에게, 당신의 업적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네.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네. ◎

제1독서 (탈출기 3,1-8 13-15)

그 무렵 1 모세는 미디안의 사제인 장인 이트로의 양 떼를 치고 있었다. 그는 양 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2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그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3 모세는 '내가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아야겠다. 저 떨기가 왜 타 버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4 모세가 보러 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떨기 한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

를 부르셨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5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6 그분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네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야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느님을 뵙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7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8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그 땅에서 저 좋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13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 이름이 무엇이오?’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14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15 하느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야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신 야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히 불릴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대대로 기릴 나의 칭호이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10,1-6.10-12)

1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 있었으며 모두 바다를 건넜습니다.
 2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3 모두 똑같은 영적 양식을 먹고, 4 모두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라오는 영적 바위에서 솟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이셨습니다.
 5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그들 대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 널브러졌습니다.
 6 이 일들은 우리를 위한 본보기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악을 탐냈던 것처럼 우리는 악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10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투덜거린 것처럼 여러분은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괴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11 이 일들은 본보기로 그들에게 일어난 것인데,
 세상 종말에 다다른 우리에게 경고가 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12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복음환호송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 (루카 9,28L-36)

1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래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2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래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래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3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것처럼 멸망할 것이다.
 4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열여덟 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5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6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7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삼 년째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 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8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돌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9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 버리십시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자하신 주님, 주님의 교회에 통찰의 은총을 주시어, 세상 일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필요
 한 것을 먼저 읽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용감히 전할 수 있게 하소서.
2.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통치자이신 주님, 공직자들에게 성령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깊이
 성찰하고, 사회적 우애와 공동선 실현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게 하소서.
3. 노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고령 사회에서 살아가는 노인들을 굶어보시어, 노인에 대한 사회 인식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세대 간 이해와 존중으로 그들의 삶이 은혜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소
 서.
4. 본당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총의 샘이신 주님, 본당 사도직 단체에 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어, 언제나 굳건한 믿음
 으로 사랑의 봉사를 실천하며 이웃과 사회의 복음화를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영원한 생명의 보증으로 이 세상에서 천상 양식을 받고 간절히 비오니
 저희가 이 성사의 신비를 날마다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